

보도시점

2025. 3. 6.(목) 11:00
3. 7.(금) 조간

배포

2025. 3. 6.(목) 9: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경주에서 식량안보 협력 논의

-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개최
-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 방안 중심으로 농업 정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총 3일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회의 공식명칭: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하였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동아시아(12: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아세안 7), 미주(5: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3: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2030년까지 식량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APEC 식량안보 장관 회의에서 수립한 과제 및 이행 계획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 Food Security Ministerial Meeting)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가 시작된 첫날인 3월 4일(화)에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다. 또한,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사진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1-2031)
		담당자	사무관	정혜영 (044-201-2036)





(사진1)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워크숍 사진



(사진2) 양동마을 방문 사진



(사진3-1) 제1차 식량안보정책실무회의 본회의 사진



(사진3-2) 제1차 식량안보정책실무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국제협력관(정혜련)